



# 국제 정치 체제의 변화와 국제 분쟁의 새로운 유형

김 옥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정치학(政博)

국제 정치 체제는 1990년대 들어 양극 체제의 붕괴, 탈이념 경제우선주의, 지구촌화 등 세 가지의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국제 정치 체제의 변화는 새로운 유형의 국제 분쟁을 초래, 이는 민족간, 부족간, 종교간 갈등에서 기인하는 극히 감정적이고 잔혹한 대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향후 예상되는 국제 분쟁 혹은 갈등의 요인으로는 경제 분쟁, 범세계적 협력 문제, 국제 테러 행위와 대응, 국가 존립의 위기 등을 들 수 있다.

## ■ 국제 정치 체제의 변화

1989년 구소련의 붕괴로 2차 대전 이후 40년 넘게 지속되었던 미소간 냉전 시대는 그 끝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냉전의 종식은 최근 5년간 국제 정치 체제에 세 가지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첫째는, 양극 체제의 붕괴이다. 미국과 구소련 두 초강대국에 의해 분할 지배되었던 양극 체제는 붕괴되고, 미국이라는 단일 초강대국에 의해 주도되면서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강대국이 혼재하는 새로운 체제로 변화하였다.

둘째는, 이념 대결에서 경제 대결로의 전환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이념간의 극한

대립은 끝나고, 그대신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국가간 혹은 지역간 대결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셋째는, 개방화·자유화에 이은 지구촌화의 경향이다. 국가간의 국경이나 영토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그대신 전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 양극 체제의 붕괴와 신국제 질서의 태동

양극 체제의 붕괴로 인해 국제 정치 체제는 미국이라는 유일한 초강대국과 그보다는 상당한 국력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다수의 강대국이 혼재하는 매우 특이한 권력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일본은 경제력에서 미국에 버금가지만, 군사력 측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취약한 상태이며, 러시아는 국내 경제 개혁의 실패와 혼란으로 미국을 견제할 여력이 없다. 중국은 향후 가장 유력한 미국의 견제 세력이나, 현재로서는 경제 개혁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개별적으로는 미국에 대항하기 힘들며, 유럽연합의 완전한 실현에는 아직도 여러 장애 요인들이 남아 있다.

따라서 지난 5년간의 국제 정치 질서는 주로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에 의해 주도되며, 대부분의 강대국들이 이를 대체적으로 묵인하거나 협조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나타난 미국의 지도력의 사례로는 걸프전을 들 수 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 미국의 주도하에 러시아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미국의 지도력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부각되어, UR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고 WTO 체제라는 신국제 무역 질서가 창출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의 강력한 지도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국제 질서하에서 과거 긴장 지역의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 분위기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PLO, 그리고 이스라엘과 요르단 등 아랍국가간에 평화 협정이 체결되었다. 한반도에서도 북·미간 제네바 핵합의로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으며, 이에 따라 북·미간 관계 개선과 북·일간 수교 협상 등이 예상되고 있다. 당분간은 남·북한간 대치 상태가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의 긴장 완화와 안정적 평화 체제 수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국제적 갈등 해결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내 민족간, 종교간 갈등은 내전의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스니아 내전은 만 3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르완다에서도 민족간 대학살이 자행되어 수많은 난민을 초래하였다. 또한 금년에는 러시아의 갑작스런 체첸공화국 침공으로 민족간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이념 대결에서 경제 대결의 시대로

국제 정치 체제의 두번째 변화는 경제적 갈등의 대두이다. 냉전시대에 보여 왔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이념간의 극한 대립이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나게 됨으로써, 국제 정치에서의 주요 갈등 요인은 이념 혹은 사상에서 경제적 이해 관계로 대체되었다.

구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으로 인해 상당한 단결력을 과시하였던 서방 국가들간에 경제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노정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무역 불균형과 시장 개방 문제로 무역 전쟁의 직전까지 도달할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간에도 UR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문제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럽 대 일본, 그리고 미국·유럽 대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신흥 공업 국가들간의 통상 마찰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경제 문제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은 지역주의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EU, NAFTA, APEC, EAEC 등과 같은 경제 블록 등이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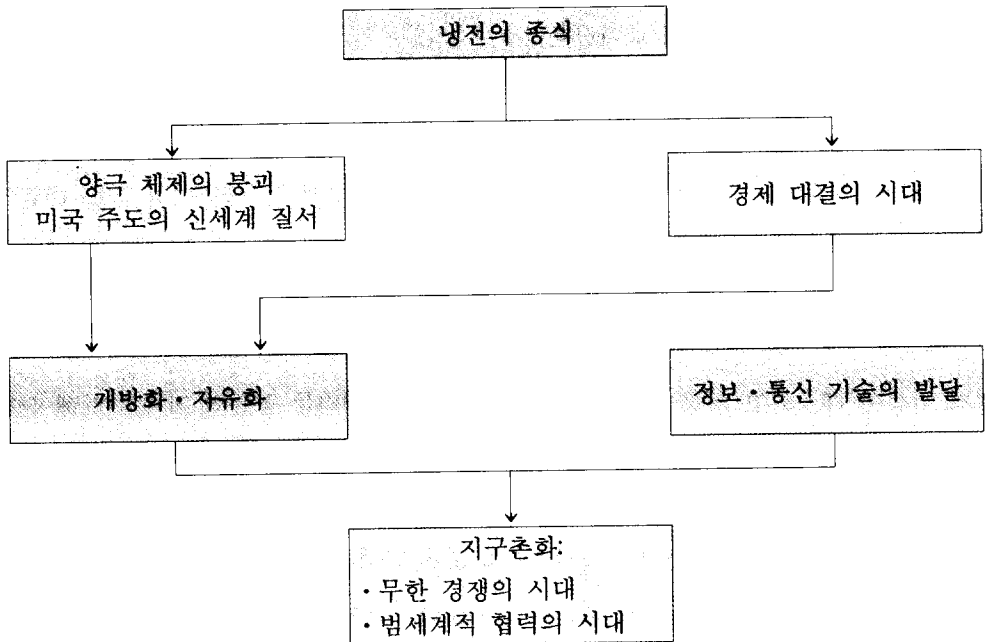
### 개방화·자유화, 그리고 지구촌화

국제 정치 체제의 세번째 변화는 개방화·자

유화, 그리고 지구촌화이다. 먼저 냉전의 종식은 과거 얼어붙었던 국제 정치 체제에 개방화·자유화의 바람을 불러 왔다. 구소련의 붕괴로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과거의 계획 경제에서 벗어나 자유 시장 경제를 채택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자유 세계 국가들도 시장 개방, 무역 장벽 철폐,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개방화·자유화의 물결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방화·자유화는 정보·통신 기술의 획기적 발달과 더불어 국가간 인적, 물적 교류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과거 국경의 개념은 희박해지고 그 대신 전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로 변해 가는 소위 지구촌

<그림 1> 국제 정치 체제의 변화 추세



화, 혹은 범세계화(globalization) 현상을 초래하였다. 지구촌화 현상이란 구체적으로 “금융, 생산, 기술, 정보, 문화, 환경, 안보 등 정치, 경제, 사회의 제반 분야가 국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범세계적으로 조직되고 있는 경향”을 뜻하고 있다.

지구촌화의 의미는 경쟁과 협조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가간 혹은 지역간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세계화 전략의 수립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둘째, 지구 환경 문제(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자원 고갈), 국제 무역 질서 확립 등 전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범세계적 차원에서 협조가 더욱 필요해 졌다고 할 수 있다.

### ■ 국제 분쟁의 새로운 유형과 특징

앞에서 살펴 본 국제 정치 체제의 변화는 국제 분쟁의 형태에도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과거 냉전 체제 하에서의 국제 분쟁은 주로 동서 이념간 혹은 계급간 대립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던 데에 비해, 최근의 국제 분쟁은 이념보다는 민족간, 부족간, 혹은 종교간 갈등에서 기인하는 극히 감정적이고 잔혹한 대결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로서 보스니아 내전, 르완다 사태, 러시아

의 체첸공화국 침공 등을 들 수 있다.

### 새로운 분쟁 발생의 배경 및 원인

이러한 새로운 분쟁 발생의 배경 혹은 근본적 원인으로는 과거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공산 독재 체제나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하에서 강압적으로 눌러 있던 민족, 부족, 종교간의 갈등이 냉전의 종식 후 자유와 민주주의의 시대를 맞아 다시 새롭게 분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구체적 분쟁 사례별로 그 발생 배경 및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보스니아 내전

유고라는 공산 독재 체제하에서 억압되어 왔던 ‘세르비아계 대 크로아티아계’, 그리고 ‘세르비아계 대 무슬림계’의 종교 및 인종 갈등이 구소련의 붕괴와 유고의 자유화 바람에 따라 1992년부터 재발되었다. 만 3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무력 충돌은 현재에도 보스니아내 세르비아 민족과 무슬림 민족과의 대결, 그리고 크로아티아 정부군과 세르비아 민족과의 대결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 ○ 르완다 사태

냉전 후 불어 온 자유화, 민주화의 바람을 등

에 업고 르완다 정부는 과거 벨기에의 식민 지배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투치족(소수 민족)-후투족(다수 민족) 간의 반목과 대결에 종지부를 찍고 타협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94년 4월 타협을 주도하던 당시 대통령 하비아리마나(후투족 지도자)의 갑작스런 죽음과 그에 따른 권력 공백을 계기로, 타협을 반대하던 강경 후투족에 의한 투치족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 시작되었다. 뒤이어 투치족 반군과 후투족과의 내전이 발생, 현재는 투치족이 권력을 되찾은 상태이며, 최근에는 투치족 정부군에 의한 후투족 난민의 대학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러시아의 체첸 침공

구소련연방(現 러시아공화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수많은 소수 민족 중의 하나인 체첸인

들은 구소련 붕괴 후인 지난 1991년 이미 체첸 공화국(대통령 두다예프)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더 이상의 분열을 원치 않는 러시아 정부는 1995년 1월 급작스럽게 군대를 파견, 치열한 전투 끝에 어렵게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를 함락하였으나, 아직도 체첸군은 항복하지 않고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국제 분쟁의 특징**

이러한 분쟁의 특징으로는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주요 분쟁 발생 지역을 보면 동구 및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해 있는 다민족, 다종교로 구성된 과거 공산국가나 후진국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둘째, 매우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이들 분쟁은 민족간, 종교간의 오래된 갈등과 증오에서 발생하는 대결로서,

<표 1> 냉전 시기 분쟁과 새로운 분쟁의 특징 비교

구 분	과거 냉전 시기 분쟁	새로운 분쟁
분쟁 발생 지역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 지역 (중동, 아시아)	다민족, 다종교의 구공산권 국가 (동구, 아프리카)
분쟁의 근본 원인	국의 혹은 이념 충돌 (합리적 계산에 의한 분쟁)	민족간, 종교간의 감정적 충돌과 증오 (비합리성)
분쟁의 양상	대규모 살상 무기, 차별적	원시적 무기, 무차별 잔혹성
국제적 대응	미국과 소련의 빈번한 개입과 중재	미국 등 강대국과 UN의 개입 어려움

국익의 합리적 이익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대·현대전과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 중세 유럽에서의 전쟁과 같이 매우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셋째, 무차별 잔혹성이다. 앞서 언급한 분쟁의 감정적이고 비합리적 성격에 따라 군민, 남녀, 노소의 구분없이 극도로 잔혹한 무력 행사가 자행되고 있다. 특히, 르완다 사태의 경우 이러한 잔혹성은 극도에 다다르고 있다.

넷째, 국제적 대응의 어려움이다. 대부분의 분쟁이 내전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미국, 유럽, UN 등의 개입을 통한 효과적인 국제적 대응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르완다 사태나 체첸공화국 사태의 경우 국제적 차원에서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보스니아 내전의 경우도 미국의 미온적 태도로 NATO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표 1>은 새로운 분쟁의 이러한 특징을 과거 냉전 시기 분쟁의 특징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분쟁 발생 지역, 분쟁의 원인, 분쟁의 양상, 국제적 대응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 ■ 향후 전망

앞에서 살펴 본 국제 정치 체제의 세 가지 변화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국제 정치 질서는 유럽연합이 현실화되

거나 중국이 국내 경제 개혁을 마치고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할 때까지 당분간 미국이라는 단일의 초강대국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둘째, 국제 관계에 있어서 경제 문제의 중요성은 계속 상승하여, 향후의 국제 정치 체제는 군사·안보 문제와 관련한 '상위 정치'(high politics)보다는 경제 문제와 관련한 '하위 정치'(low politics)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셋째, 지구촌화의 경향은 점점 가속화되어 한편으로는 한 울타리 내에서 지역간, 국가간,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국제 질서 유지'와 '환경 문제 해결' 등 국제 공공재 제공을 위한 협조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 새로운 유형의 국제 분쟁 당분간 계속될 듯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정치 질서가 과거 냉전시대의 국제 질서에 비해 느슨하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억눌려 왔던 민족·부족간, 혹은 종교간 갈등에서 기인하는 새로운 유형의 국제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짜여진 신국제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이러한 유형의 국제 분쟁은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살펴 본 세 가지의 국제 분쟁들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여전히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 보스니아 내전은 그 해결의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보스니아내 무슬림 민족과 세르비아 민족과의 싸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크로아티아 정부군과 세르비아 민족과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르완다 사태는 일단 진정된 듯하였으나, 지난 4월 22일에는 키베호 난민수용소에서 정부군(대부분 투치족으로 구성)에 의한 8,000명 이상의 후투족 난민에 대한 학살이 자행되어 다시 한번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향후에는 난민촌이 위치해 있는 우간다, 탄자니아, 자이르, 부룬디 등 주변 국가들로까지 분쟁이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체첸 사태도 일단은 해결되었으나 전투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러시아 정부에 미치는 후유증은 막대한 것이며, 이를 계기로 러시아내 소수 민족들간의 갈등이 러시아내 오세티야, 다게스탄, 타지키스탄 지역 등에서 언제 다시 폭발하게 될 지 모르는 상태이다.

한편, 이들의 다른 지역에서도 민족간, 종교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비록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라크와 터키로부터 독립하려는 쿠르족의 투쟁, 스리랑카에서 벌어지는 태밀족과 시날족의 갈등, 알바니아에서의 무슬림계와 세르비아계와의 대립, 미얀마에서의 여러 민족간의 다툼 등 비슷한 유형의 갈등은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 향후 국제 갈등의 잠재적 요인과 다섯 가지 분쟁 유형

현재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국제 분쟁의 유형은 위에서 살펴 본 민족간, 종교간 갈등에서 기인하는 잔혹한 유혈 분쟁이나, 이 밖에도 국제 사회에는 여러 가지 잠재적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첫째는 경제 분쟁으로 경제적 이해를 둘러싼 자본주의 국가들간의 갈등이다. 미-일, 미-EU, 미-중, 일-EU, 한-미, 한-일 등의 무역 마찰이 심각하며 언제든지 무역 전쟁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특히 미-일간의 무역 마찰은 현재 무역 전쟁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둘째는 국제 공공재의 제공과 범세계적 협력 문제이다. NPT 체제 유지, 지구 환경 보전, WTO 체제와 자유 무역 기조의 유지, 안정적인 국제 통화의 유지 등과 같은 국제 공공재의 제공에 필요한 범세계적 협력에 있어서, 그 비용 분담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간(특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셋째는 국제 테러 행위를 둘러싼 갈등이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무차별 국제 테러 행위는 냉전 후 도래하고 있는 국제적 평화 무드에 불만을 품은 강경파 소수 민족(주로 중동 지역)의 반발로서, 이러한 테러 행위를 계기로 미국 등 강대국과 이들 소수 민족들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미

국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서방 국가들의 對이란 제재 조치들은 이란 정부가 테러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하고 있다.

넷째는 국가 존립의 위기이다. 과거 식민 통치의 피해자였던 많은 개도국 중에는 냉전 종식 후 끊임없는 내전과 경제 파탄으로 인해 국가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수 있는 바, 그 예로 르완다, 하이티,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모잠비크, 미얀마, 수단, 타지키스탄, 자이르, 잠비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적절한 국제적 지원이 따르지 않는 한 향후 새로운 국제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의 네 가지 잠재적 갈등 요인과 이미 현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족, 종교간 갈등을 합하면, 향후 예상되는 국제 분쟁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표 2>는 이들 다섯 가지 유형의 국제 분쟁을 그 대상, 원인, 양상, 국제적 대응, 주요 발생 지역 등의 측면에서 비교하고 있다.♣

<표 2> 향후 국제 분쟁의 5 가지 유형

구 분	민족 및 종교간 분쟁	경제 분쟁	범세계적 협력 문제	국제 테러 행위와 대응	국가 존립의 위기
대상	한 국가내 여러 민족 및 종교 집단간	자본주의 국가간	모든 국가간 (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	미국 등 강대국과 소수민족	한 국가내 여러 집단간
원인	민족, 종교간 오랜 갈등과 증오	경제적 이해 충돌	공공재 제공의 비용 분담 문제	평화 무드를 원치 않는 강경과 소수민족의 반발	절대 빈곤에 따른 국가 붕괴
분쟁의 양상	원시적 무기, 무차별 학살	무역 전쟁 (무력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 못함)	논쟁이나 언쟁 (무력 충돌 가능성 적음)	테러 행위와 분별적 보복	원시적인 형태
국제적 대응과 해결 가능성	어려움	WTO 제소 및 양자간 해결	미국의 지도력 여하에 달려 있음	어려움	국제 기구를 통한 지원 가능
주요 발생 지역	동구, 아프리카	북미, 유럽, 동아시아	전세계	북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일부